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순례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루살렘성 봉헌식

(느헤미야 12장 27 - 47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도 했습니다(롬12:1).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공부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전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승리의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같은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이룬 대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민을 정착시킨 후 백성과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 감사의 노래를 하게 했고,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운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한편은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다른 편은 에스라가 인도하면서 서로 성을 돌며 행진했습니다. 각 그룹엔 노래하는 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을 에워싼 후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며 크게 소리쳤고(43절),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사실 성 쌓는 일은 6장에서 완성되었지만 봉헌식은 12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을 수축하는 일과 예루살렘 재건 및 백성의 재헌신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을 수축하는 일에서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돋보였고(1 - 7장), 예루살렘 재건과 백성의 재헌신의 부분에서는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돋보였습니다(8장 - 12장 26절).

그래서 12장 27절 이하에서 봉헌식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각각 축하하는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쌓은 성을 둘러싸고 성전에 모였고, 거기서는 에스라가 집전하여 나라의 영적 삶의 중심지에서 예배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갱신과 재봉헌을 인도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을 봉헌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부각됩니다.

1. 백성의 봉헌식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고후 8:5).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물질을 구제비로 바친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먼저 바쳤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5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선적으로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선적으로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문을 바치고 성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봉헌이란 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지배를 받도록 바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문을 바치고 성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봉헌이란 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지배를 받도록 바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을 먼저 정결케 했습니다(3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바치기 전에 의복도 빨고 금식, 금욕하였습니다(민8:5-22, 대하 35:6, 스6:20).

2. 성을 봉헌 하다

백성들은 문과 성에 우슬초로 속죄양의 피와 물을 뿌린 후 봉헌식을 했습니다.

우선은 백성들이 축제의 행진으로 성벽을 돌면서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찬양대가 노래와 악기로 찬양했습니다.(27절)

이때 찬양감독은 에스라히야였고(42절) 곡목은 시편 78, 105, 106, 48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희생을 바쳤고 백성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4:4)는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12:43)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4:4)는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12:43)

3. 계속되는 시역

(1) 느헤미야 12장 44 - 47절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12:44).

성전 봉헌을 한 후에도 느헤미야는 성전 공간을 맡을 일꾼을 세우고 십일조를 공간에 쌓게 했습니다.

(2) 느헤미야 13장 1 -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석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노니라" (13:3).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방인과 타협한 이들을 골라내어 추방 하고 백성을 성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얍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3:1).

그 날은 기쁜 날이며 중요한 날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같은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원인을 깊이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과 국가를 재건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 3가정, 현지인 선교사 5명 선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을 기도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면접을 실시, 18가정이 지원했으나 3가정(6명)의 선교사를 선발하였다.

또한 현재 장신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중인 Lianmang Cinzah 목사(미얀마 크리스찬 미션 회장 겸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현지인 선교사 5명도 선발하였다.

또한 현재 서울교회가 북아프리카에 파송한 문형숙 선교사는 영국의 Nations 선교회에 가입하여 북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한다.

이번에 선발된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1. 김한성, 남영예

- 인하대학교 중문학과 · 성균관대 대학원
- 싱가포르신학대학(M.Div)
- 장신대신대원(M.Div)
- 파송지원국: 동아시아

2. 이은준, 강혜정

- 전북대학교경영학과 · 장신대신대원(M.Div)
- 카자흐스탄 선교사역
- 파송지원국: 카자흐스탄

3. 조범연, 김희정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 신대원(M.Div)
- 장신대대학원 기독교윤리(Th. M)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Ph. D in Missio)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연구교수
- 파송지원국: 인도

<현지인 선교사>

1. Thawng Ngeih Mang 전도사

- 미얀마 크리스찬신학교 졸업(B.Sc. M.A(Theo.))
- Seik Kaan Township, Yangon에서 복음사역

2. Zam Sian Tuang 전도사

-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졸업(B.Th)

3. Zing Nawn 마라 복음주의교회 전도사

- 다곤 대학교 졸업(B.A)
-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졸업(B.Th)
- Hlaing Thaya Township, Yangon에서 복음사역

4. Ram Cung 개혁주의 복음교회 전도사

-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졸업(B.Th)
- Township, Yangon에서 복음사역

5. May Kya 전도사

- 미얀마 크리스찬 신학교 졸업(B. Th)
- Shwepyitha Township, Yangon에서 복음사역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서명철 목사(지도 교역자)

1. 동아시아에 복음전도의 자유를 허락 하옵소서.
2. 현지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단기 선교단이 되게 하옵소서.



홍성주 장로(단장)

1. 새백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동아시아선교의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2.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모든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동호 집사

1. 팀이 하나 되게 하소서.
2.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계획 / 마음을 알게 하소서.
3. 분주하지 않고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소서.
4.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최치순 집사

1.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2.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복음의 도구로만 나타나게 하소서
3. 동아시아를 향하여 단기 선교 대원들이 하나 되어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양철 집사

1.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소서.
2.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3.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손재영 선생

1. 현지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보게 하소서.
2. 단기 선교 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기쁘게 감당케 하소서.
3. 모든 순서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쳐지게 하소서.

2005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시작

· 대학부: 7월13일(수)-16일(토) 철원담터수양관

· 장년부: 7월15일(금) 오후 6시 교회 · 디아스포라부: 15일(금)-16일(토) 교회

2005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학부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3박4일간 철원담터수양관에서 '전도하는 대학부 교회의 소망'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고 장년부(30세 이상 모든 성도)는 15일(금) 오후 6시 본당에 모여 이종운 목사와 조종남 목사(전 서울신학대학장), 김운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자'를 주제로 일일 수련회를 갖는다. 이날 다락방 모임은 장년부 수련회로 대치한다.

또한 디아스포라부도 15일(금)-16일(토) 교회에서 이종운 목사와 윤영국 목사 박광일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2일간 '신앙의 공동체로 뭉치자'를 주제로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전도하는 대학부로 거듭나고, 어른이 먼저 교회와 가정·국가를 올바르게 세우며, 신앙으로 하나되는 디아스포라부가 되도록 기도한다.

성경암송 · 필사 참가일정표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7/16(토)
1부 (오전9시~오전10시)	가인경(9) 심명숙(14) 이은선(2) 송미경(2) 박후남(2) 전희경(3) 김진희(1) 이우진(1) 고영순(1) 강경옥(1)	안미경(1) 이인숙(1) 김지연(1) 박정옥(1) 강을숙(1) 박정희(1) 조명오(1) 임춘자(1) 김춘자(1) 김정운(8)	김유경(3) 이은희(2) 박진경(1) 이현미(1) 방남희(1) 오종원(1) 임옥균(1)	김유경(3) 이은희(2) 박진경(1) 이현미(1) 방남희(1) 오종원(1) 임옥균(1)	이경구(3) 성수영(6) 최인(13) 서영제(6) 김영석(13) 김신영(13) 송인권(13) 강경희(13) 원세경(13) 신영순(13)	표정희(정) 정현주(14) 김명심(14) 최영일(12) 오영화(12) 김혜영(12) 박인애(12)
2부 (오후2시~오후5시)	이신애(14) 양호경(13) 김평화(9) 유옥현(13) 조순영(1) 채유희(1) 차명숙(1) 정승자(1) 류승혜(1) 신동철(1)	최인애(고) 박미혜(4) 장양일(6) 김정희(7) 이순영(10) 김연화(1) 최영옥(1) 지영순(1) 김지숙(1) 김희옥(1)	김미향(10) 김영희(3) 위성남(12) 박연순(10) 이영희(원) 오철수(1) 최태경(1) 김정은(1) 지승현(1) 김경숙(1)	윤경식(12) 김진희(14) 이순희(13) 진교남(1) 강승윤(1) 배경옥(1) 서성재(1) 최습(1)	이경구(3) 성수영(6) 최인(13) 서영제(6) 김영석(13) 김신영(13) 송인권(13) 강경희(13) 원세경(13) 신영순(13)	신애명(정) 윤해경(정) 이신애(정) 이현숙(정) 주미영(정) 전현미(정) 최경선(정) 한경진(정) 장낙훈(8) 한성숙(7) 김유진(11)
3부 (오후7시~오후10시)	박천희(11) 김구진(11) 이양숙(11) 김은주(11) 주동재(13) 이소영(13) 윤동수(13) 강진환(13) 정현선(13) 윤석배(13) 강진환(13)	이승준(정) 김지현(9) 장호진(3) 선종진(7) 김구태(4) 오치열(11) 정을순(2) 송호진(1) 이민숙(1) 김용환(1) 임미경(1)	이승준(정) 김지현(9) 장호진(3) 선종진(7) 김구태(4) 오치열(11) 정을순(2) 송호진(1) 이민숙(1) 김용환(1) 임미경(1)	박재숙(8) 김시환(6) 윤숙희(6) 윤영구(1) 이학명(5) 김종윤(7) 홍창배(12) 유명중(12) 유종호(12) 신봉희(12) 손지희(12)	박재숙(8) 김시환(6) 윤숙희(6) 윤영구(1) 이학명(5) 김종윤(7) 홍창배(12) 유명중(12) 유종호(12) 신봉희(12) 손지희(12)	원강희(11) 이성근(11) 이은일(13) 김규환(13) 배효복(정) 소은희(정) 오경태(정) 양은희(정) 정희진(정) 김재중(14) 김진자(14) 고화경(정) 김경숙(정) 김경철(정) 김지현(정) 박선미(정) 박대미(정) 이근대(정) 이선호(정) 임승환(정) 임연영(정) 전리사(정) 이주희(정) 김재중(14)

만민에게 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윤찬오 장로(전도위원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 따라 몸 되신 서울교회는 2005년 농촌 전도봉사대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2리 주천제일교회(담임목사 정연승)에 8월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파송기로 하였습니다.

전도, 교육(성경학교), 찬양, 의료(양방, 한방, 수의), 이미용, 홍보, 시설, 취사, 수송 등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사명은 힘써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거룩한 일-복음 전도사역에 땀 흘릴 헌신된 일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위대하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사역이 바빠서 직장관계로 이 모양 저 모양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의 간곡하신 부탁과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과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물질과 시간과 헌신으로 거룩한 복음사역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서명협 목사(제5기 단기선교팀지도교역자)

제5기 동아시아 단기선교 준비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된 서울세계선교대학에 참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단기선교팀의 특징은 지원자 30명이 모두 대학부, 청년부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선교지로 동아시아 지역을 택하게 된 것은 일년 전부터 대학부 안에서 동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지 언어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후 금년도에 들어와서 청년부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동아시아 선교의 비전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제목은 서울교회의 세계선교 비전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 장기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 청년들이 단기선교사로 동참하여 장기선교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앞으로 장기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5년 동아시아 단기선교를 출발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은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서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시민양성

고등부 친구초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우 (고등부 회장)

다가오는 7월 17일(주일) 오전 10시에 저희 고등부(601호)에서 '친구초청잔치' 행사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친구를 초청하는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그 동안 예배는 드렸지만, 고등부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이번 친구초청잔치를 맞아 저희들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릴레이금식기도와 수요일예배 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기도회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구초청잔치에는 고등부 찬양팀 NLC의 신나는 찬양과 고등부 소개영상,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듀엣의 찬양과 워십팀의 워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주일) 오전 10시 601호에서 여러분 모두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국시민양성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익인 장로(교육 1국장)



금년도 교육 1국의 여름성경학교가 7월 21일(목)과 22일(금)에 개최됩니다. 이맘때쯤 되면 어린 시절 여름성경학교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유년 시절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으며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년의 80%가 유년 주일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잠언 22:4~6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한 자기 영혼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어릴 때에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학

교는 최선을 다하여 주변의 이웃에게도 권면함으로써 모두들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집사(대학부 부장)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7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3박4일 동안 강원도 철원 담터수양관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금년에는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지, 또 어떤 지체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수련회에서 돌아오게될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주제는 ‘전도하는 대학부, 교회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제성구로 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다

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멀리 수련회 장소까지 오셔서 귀한 특강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결단을 불러 일으켰던 이종운 목사님께서 금년에도 특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3일간의 저녁집회는 본 교회 장년신앙강좌반에서 가르치시면서, 연세대 교수로 계시는 김재진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적 신앙의 정립을 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교회 전도왕으로 여러 해 섬기고 계신 박이선 집사님의 간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뜨거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시원하게 빠져드는 조별성경공부(Group Bible Study)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13차 김치세미나 · 제6회 세계 개혁 신학회 은혜중 마쳐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Institute)

* 세계 18개국 신학관계자 100여명 참석

본 교회내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후원하고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와 한국 개혁신학회(회장 이상직 호서대 교수)가 주관하는 제6회 세계 개혁 신학회가 오늘을 끝으로 엿새 동안의 일정을 마친다. 지난 화요일부터 서울교회 예배당 곳곳에서 진행된 IRTI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18개국에서 온 신학교수 100여 명이 전문적인 강의와 토론을 벌이는 국제적인 수준의 신학학회이다.

이번 학회에는 "다원적이며 국제적인 세계에서의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두 9개 과목의 강의와 토론, 50여개의 선택 워크숍이 열렸다. 세계개혁신학회 회장인 네덜란드의 반더 베크 교수가 첫 강의를 했고, 이어 본 교회 협동목사인 김영한 목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혁주의>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정체성>, <교회연합과 기독교 정체성>, <교회와 사회>,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로의 참여와 기독교 정체성> 등 깊이 있는 각종 신학적 주제들이 망라됐고 50여명의 신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자신의 나라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신학적 주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준비위원회의 회장을 맡은 이종윤 목사는 <오늘의 위기와 미래의 과제 Today's Crisis and the Future's Task>란 제목으로 둘째날 강의를 맡았다. 이종윤 목사는 프랑스혁명과 공산혁명, 1976년 방콕선언 등 세계 역사상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기쁨, 거룩, 진리, 선교, 연합, 사랑, 지도자 등 7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교회의 연합, 신앙의 실천, 복음 앞에서 확고부동한 자세, 일관된 정체성, 겸손 등 5가지를 지적했다.



* '새벽기도회'의 역동적인 한국교회 목격

신학자들은 이번 한국 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기독교를 새롭게 주목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열렸던 IRTI에 모두 참가해왔다는 마틴 브링크만 교수(암스테르담 대학 신학부 교무처장)는 이번 한국에서의 학회를 통해 서양에서 보아왔던 전통적이며 고답적인 모습과 달리 매우 역동적이며 자기 정체성 형성에 적극적인 한국의 신앙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벽마다 진행된 새벽기도회는 한

국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신학자들에게 큰 놀라움이었다. 신학자들은 처음엔 시차 때문에 피곤하고 적응도 안됐지만 학회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한국기독교의 부흥의 원천을 경험했다는 반응이었다. 제 13회 김치세미나로 치러지기도 한 이번 학회에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학회의 전반적인 진행과 참석자들의 식사, 숙박, 관광안내까지 맡아 일주일간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서양의 소규모 교회에 익숙한 신학자들은 이번 학회가 일반 성도들과 분리되지 않고 적극적인 성도들의 참여 속에 교회 자체에 기반을 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다면 정성어린 대접에 감사해했다. 넷째날 신학자들은 시내관광과 가든파티를 통해 한국기독교의 자취와 한국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신학자들은 오늘 저녁예배를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 김민철(편집부)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목) 기독교 학술원 학술상 심사 위원회에 참여한다.
- 개업: 건강약국(14교구 정선화 성도) - 강남보건소 옆 T. 517-3520
- 최택식 성도(13교구) PC방(Joy-Click, 농협 지하) T.568-2368
- 득남: 5교구 안치영 김진아 성도
- 교역자 휴가: 지혜영전도사 (7월11~7월27일) 대행: 이태훈 목사(016-224-4905)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남선교회(7월10일) 바울남선교회(7월17일)
- 금주의 식사: 전인화 권사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IRT이란?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Institute (세계개혁신학회)의 약칭이다.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연결하여 각 나라의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호 개혁주의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고 서로의 사상을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 반더 베크 교수 등 네덜란드 자유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네트워크이다. 지난 95년에 헝가리에서 1차 세계개혁신학회가 열렸고 이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헝가리, 남아공, 네덜란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청서장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선택받은 백성, 제사장의 나라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예배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I부 오전 11시
예배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